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으로 여는 성탄의 의미-

창세기 3:15, 누가복음 2:1-20

정윤돈 목사님

서론 : 성탄절 문화

(1) 성탄절에는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여러 가지 전통, 풍습이 있다. 사람들은 그 유래를 모르면서도 웬지 성탄절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지내는 것 같다. 이런 기쁜 마음 때문에, 성탄절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트리'다. 어디에서부터 유래 되었느냐 하는 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루터의 이야기다. 루터가 밖을 바라보니 큰 전나무가 있었는데, 그 위에 별이 반짝이는 것이다. '저것을 가지고 와서 꾸미면 예뻐겠다' 해서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산에 삼을 들고 올라갔었다. 나무 고르기가 참 힘들었다.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트리가 나오는데, 그때는 산에서 나무를 캐서 화분에 심어서 트리를 했었다. 문제는 이게 1주일 지나면 죽는다는 것이다. 트리를 했더니 말라죽는다. (웃음) 예쁜 나무도 찾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창작했다. 두꺼운 철사를 말아서 묶고 천장에서부터 장식을 달아 내렸다. 그랬더니 보기 참 좋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잡아당겨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되더라. 그렇게 꾸미는 활동 자체가 참 기뻐졌다. 어릴 때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던 기억도 난다. 요셉도 하고, 천사도 했었다. 나중에는 연극 대본을 직접 써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고, 전체가 참여하고 하는 것은 각인이 된다.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그 영적 문화가 내 삶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성탄절 카드도 썼었는데, 그때는 못 그리는 실력으로 그림을 다 그려서 카드를 써서 보냈었다. 받은 카드를 집에 걸어놓고 전시해두곤 했다. 산타클로스 이야기도 있다. 요즘은 굴뚝이 없는데, 아마도 이삿짐 센터 사다리차를 타야 하지 않을까. (웃음) 아무튼 이것은 1700년 전 소아시아에서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던 데에서 유래했다. 이것을 1930년대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광고를 할 때 활용하려고 빨간 옷을 입혔는데, 지금까지 이게 문화가 되었다. 선물을 받으려고 양말을 받기도 하고, 사슴과 썰매 생각도 하고 그런다. 성탄절에는 2부 행사로 칸타타 같은 것을 하기도 한다. 중학교 때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에 찬양을 하는 것이다. 이게 끝날 줄을 몰랐다. 알고 보니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전곡 연주였다. 왜 저걸 하느냐 물어봤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몰랐다. 이게 원래 성탄절 전날에 했던 공연이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고 한다.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우리교회에도 2시간 넘게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 날이 오게 되었으면 좋겠다. 영락교회 찬양대는 성악 전공자들로 꼭 차 있었다. 일반인은 설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교회들이 든든하게 다시 서는 제2의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바란다. 그 내용을 우리가 심어주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제1, 제2, 제3 RUTC 운동이다. 성탄 문화, 찬양 문화를 세워서 문화를 갱신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캐롤의 경우, 원래는 강강술래와 같은 문화였다. 둥글게 돌면서 노래하는 것이었는데, 성탄 때 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었다. 전통 민속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노엘'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프랑스어로 성탄절, 또는 캐롤이라는 의미로서, '높이 찬양한다'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새벽송 문화도 있었는데, 청년 때 새벽에 성도들의 집을 돌면서 찬양하고, 선물도 받고 그랬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때 참 좋은데, 아무도 밟지 않은 눈

길을 처음으로 밟으면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억에 오래 남겠는가. 그 추억은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잊혀지지 않는 것이 된다. (2) 이런 다양한 풍습이 발생한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크리스마스가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때 항상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의미도 모르면서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도 많다. 어떤 사람들은 또 상업적인 이유로 성탄절을 크게 기념하는데, 의미도 모르고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성탄절 기념을 하고 장식을 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려주면 된다. 성탄절을 대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이 바뀌는 진정한 축복의 날로 여러분이 변화시켜 주시길 바란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출을 올리려고, 젊은 남녀는 데이트를 하려고 성탄절을 기다린다. 한 잔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으려고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이들에게 알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초청을 많이 하시길 바란다. 1년 중에 성탄절 때는 꼭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성탄을 즐기고 있는데, 나는 그것 정도만 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내일 맛있는 것 드시고, 선물도 많이 나누면서 행복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그러나 만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성탄 이브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어렵고 힘들 때, 성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1. 2천 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해서 생긴 사건들

(1) 2천 년 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이를 받아들였다. (2) 만삭이 되었을 때 인구 조사를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출산의 기미가 보이게 되었다. 출산할 장소를 찾았으나 찾지 못해서,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말 여물통인 구유에 예수님을 눕여야 했다.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떡집'이라는 뜻의 고장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말씀이시지 않나. 그렇게도 의미가 연결된다. (3) 이때 천사들이 양 치는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목동들은 마구간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이다. 이것이 BC 6년 5월 14일쯤이라고, 최근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 날은 하필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운 날이기도 하다(1948년). (4)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후 8일 만에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고, 첫째 아이는 40일 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거기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그 아기가 그리스도로 탄생한 아기임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임을 알아본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란다.

(5) 아기가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헤롯 임금에게 아기가 태어난 곳을 물어본다. 베들레헴이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박사들이 경배한 장소는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었다.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일 수 있다. 영어로는 baby가 아니라 child라고 되어 있다. 헤롯도 아이들을 죽일 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나. 성경을 꼼꼼하게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대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에 분노한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 버린다. 그 후,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유아 학살이 있기 전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했다. 그때 그 비용이 되었던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 이것은 각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이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애굽에서의 피난 자금이 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예식을 행할 때 부자들은 소와 양을 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다. 요셉과 마리아는 산비둘기를 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가난한 이 가정이 수년 동안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사들이 드렸던 이 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성탄절이 진정으로 기쁜 날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1)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날이기 때문이다.

(2) 인간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이 해결하신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인 것이다. 이 땅에서는 살면 살수록 천국이 기대되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지는 법이다. 본향을 더 바라보게 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과 상처만 남는다. 구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 바란다. 날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3)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래서 이들은 무속, 점술, 우상, 운명, 시주팔자라는 울무와 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운명, 시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 것이다. 이 날이 크리스마스다. RUTC방송국 국장인 이정근 장로님은, 원래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주필, 대표이사를 지냈던 분이다. 이 회사에서 전에는 일 년에 세 번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한 번은 사무실에서, 또 한 번은 윤전기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한 번은 신문사 창립자 제삿날에 한다고 한다. 경제신문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상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된 것이다. 불신자들은 이사도 날짜 맞춰서 간다. 방향 맞춰서 간다.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날짜와 방향을 정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기쁜 날인 것이다.

(4)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수백 번 이상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었다. 이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주셨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5)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날인 것이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소수만 있어도 그 나라는 축복받게 될 것이다. 일본이 잘 사는 이유도 그런 것 같다.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모른다. 일본에서 순교한 사람이 한국에서 순교한 사람보다 더 많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모른다. 선교사님들이 한양에 와서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길이 얼마나 질퍽거리는지 모른다고 했다. 한양 도시 곳곳이 대소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했다. 지금도 세계에 그런 나라가 많다. 세계에 가 보라. 한국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다. 약간만 갱신되면 세계 최고의 나라, 선진복지국가로 세계에 복음 전할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의 갈등도 필요한 과정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주 예수께서 나신 것을 기뻐하게 되면, 흑암은 썩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의 경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 일의 주역이 여러분이다.

결론 :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엄청난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풍성한 선물을 누리시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이 무엇이겠는가?

(1)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2)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롬,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 문제, 어려움이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평안,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란다.

(3)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 천국 티켓을 선물로 주셨다.

(4)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다. 나밖에 모르는 존재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원수까지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사랑의 선물, 용서의 선물을 나누어준다면 다 살릴 수 있다.

(5) 땅 끝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다.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전 세계에서 한국 여권보다 더 좋은 여권이 없다. 세계의 문을 열고 세계로 들어가서 살리는 우리 후대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